

포토에세이

한국의 얼굴, 한국의 마음 ㉔

한국의 탑

시대를 풍미하는 빼어난 정점, 한국의 石塔

글_이흥우 시인 사진_김대벽



▲ 불국사 3층석탑(석가탑). 국보 21호(높이 8.2m, 700년대 중엽)

◀ 불국사 다보탑. 국보 20호(높이 10.4m, 700년대 중엽)

1967년 여름, 혼자서 동해의 대왕암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경주시(당시 월성군) 양북면 양북에서 버스를 내려 8km쯤 되는 띄약별 시골길을 타박타박 걸었다. 길은 작고 큰 산들과 논밭들의 벌판을 끼고, 오른쪽으로는 대종천이 동해를 향해 흘렀다.

어디쯤 이르렀을 때 문득 외쪽 언덕 마을의 집과 밭들 사이로 두 기의 당당한 석탑이 나타났다. 느닷없이 땅에서 솟았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옛 감은사 터의 동·서 두 3층석탑이었다. 어딘가 신라 때의 자연을 연상할 만한 자연 풍경이었지만, 현대의 산야에 문득 신라가 출현한 것 같았다. 참으로 당당한 통일신라인의 기상이 다가오는 듯한 신라 석탑의 시조(始祖)와도 같은 탑이었다. 나는 그날 밤 그곳 양북면 용당리에서 '비영업적인' 민박을 하며 저녁 한동안을 서탑의 넓찍한 기단가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음력 열사흘께의 달빛 사이로 신라의 별레와도 같은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중국의 벽돌(磚塔)이나, 일본의 나무(木塔)와 달리 한국은 '돌탑(石塔)의 나라'라 한다. 정영호(鄭永鎬, 미술사학자) 박사의 「한국의 석조미술」(서울대 출판부, 1998)에는 한국에는 1천 300여 기의 탑이 있는데, 전탑(돌로 전탑을 모방한 '模전탑' 도), 목탑 등의 예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이 석탑(대개 화강암)이라고 했다.

1천 300여 기의 한국 석탑의 도시조(都始祖)는 전북 익산 미륵사 터의 거대한 백제의 석탑이다. 윗부분이 파괴되어 6층 일부까지만 남았어도, 갈 때마다 그 앞에 가만히 서서 '위대하다'는 생각을 거듭 한다. 원래대로 9층까지, 그리고 똑같았다는 동쪽 탑까지가 지금도 있다면, 얼마나 더 장관일까 하는 부질없는 아쉬움을 느낀다.

- ▶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 국보 10호(높이 5m, 800년대)
- ▶▶ 감은사 터 3층석탑. 국보 112호(서탑, 높이 13.3m, 600년대 중반, 하한 682년)
- ▼ 장흥 보림사 3층석탑. 국보 44호(동·서탑, 높이 5.4m · 5.9m, 870년)



미륵사 터 석탑은 목조탑을 우직할 정도로, 그러나 절묘하게 '변안' 한 것이고, 비슷한 시기의 정림사 터 3층석탑(그것을 모방한 고려 때의 왕궁리 5층석탑도)은 추상적으로 생략되며 더 석탑의 조형방향을 찾아간다.

그리고 감은사 3층탑이 신라 석탑의 제 모습을 확립하며, 불국사 3층석탑(석가탑 : 무영탑)은 한껏 세련된 신라 석탑의 빼어난 정점을 이룬다. 나는 감은사 탑에서는 임전무퇴와 신라 화랑의 야성적 기개를 느끼고, 석가탑에서는 그 비례, 체감률 등 돌탑을 통해서 표현된 원숙 · 세련된 불교미술, 신라의 아름다움의 한 도달점을 느낀다. 석가탑과 다보탑, 한 쪽은 간소하고 한 쪽은 화려하지만, 쌍벽을 이루는 두 석탑에는 통일신라의 궁극의 문화적 도달점이 아울러 있다. 그리고 법화경의 한 대목(見寶塔品)을 생각한다.

옛날에, 부처(釋迦世尊)가 왕사성의 영취산에서 1만 2천(또는 1천 200)의 제자(스님)를 비롯한 8만의 보살, 마하살, 2만~3만의 천자 · 천왕, 수많은 용왕 등 무수한 회중(會衆)들 앞에서 '법화경'을 설법했다.

법화경(바른 가르침의 흰 연꽃)은 '넓고 큰 가르침을 말한 경전의 왕이며,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는 문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길'이라고도 한다. 부처가 그 가르침을 한창 설법하는데, 땅에서 광대한 보탑(寶塔)이 솟아올라와 공중에 섰다. 높이는 500유순(由旬), 너비는 250(혹은 500)유순이었는데, 유순은 보통 말이 하루를 갈 만한 거리로 60리, 또는 80리쯤이라고도 한다. 나타난 탑은 온갖 보석, 보물들로 장식되고, 5천 개의 난간과, 1천만 개의 방(감실)이 있었다. 무수한 포장이며 덮개며 깃발이 나부꼈고, 1만 개, 1억 개의 갓은 보배로운 구슬과 방울이 달렸으며 좋은 향기가 사방에 퍼지고, 33천의 하늘에서는 만다라꽃이 비처럼 내렸다. 보탑 속에서 "좋다 좋도다, 석가모니 세존의 말씀하시는 바는 모두가 진실이다" 하는 소리가 들린다.



◀ 익산 미륵사 터(彌勒寺址) 석탑. 국보 11호(현재 높이 14.24m, 600~640년대 추정)

▲ 화엄사 4사자 3층석탑. 국보 35호(높이 5.5m, 700년대 중엽)



법화경의 “보탑이 나타나 대중을 본다는 대목(見寶塔品)”은 대개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이윽고 한 보살이 보탑의 연유를 묻는다.

“이 보탑은 아득한 옛날 보정(寶淨) 세계의 다보(多寶)여래의 사리탑이다. 다보여래는 일찍이 ‘내가 성불하고 열반을 한 다음에 법화경을 설법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탑묘(塔廟)는 이 경을 들으러 그 앞에 솟아나 이 말씀이 모두 진실이라고 증명하리라’는 서원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 땅에서 솟아난 것이다.” — 세존의 설명은 대강 이랬다.

보살이 다시 다보여래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하자, 세존은 오른손 손가락으로 보탑의 문을 열었다. 다보여래는 유골이 아닌 선정(禪定)하는 모습 그대로 현전했다. 세존이 옆자리를 권하고 두 부처는 나란히 앉았다. 가르침(교법)의 진리를 상징하는 영원한 법신불(다보)과 가르침을 설법하는 분신인 응신불의 본체로서의 보신불(석가)이 한 자리에 나란히 앉은 것이다. 그들은 생사를 초월해서 길이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경주 불

국사 마당에 대낮에도 달밤에도 그렇게 석가와 다보여래가 현전해 있다는 상상을 해본다.

특히 다보탑은 특수형인데,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처럼 더 날씬한 모양의 각종 탑신에 건물의 세부, 불교적인 인물상, 동물상 등의 부조가 아름다운 특수형 돌탑들도 많다. 나는 다보탑과 더불어 특수형으로 가장 유명한 화엄사 4사자 3층석탑을 갈 때마다 효대(孝臺)까지 열심히 올라가서 한참씩 돌며, 서며, 바라본다. 주위의 노송도 좋고 앞에서 공양을 드리는 법사상도 특이하다. 탑신의 조각, 더욱 기단 위의 네 귀퉁이에 앉아서 탑신을 받치는 사자들을 바라본다. 두 마리는 입을 벌리고 두 마리는 다물었는데, 흔히 암수라고도 하지만 벌린 입은 ‘아(阿)’를, 다문 입은 ‘흠(吽)’을 표현한 것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아’는 자모의 첫 글자, ‘흠’은 끝 글자고, 모든 것의 시초와 끝, 특히 밀교에서는 우주의 처음과 궁극, 만물의 근원, 열반 등을 뜻한다고 한다. 장흥 보림사 3층석탑은 그 안에서 ‘870년’에 세웠다는 명문이 나와 확실한 연대를 알게 된 드문 석탑 중의 하나이다.



▲ 익산 왕궁리 5층석탑. 국보 289호(보물 44호에서 승격), 그 안에서의 발견유물 국보 123호
▶ 부여 정림사 터 5층석탑. 국보 9호(높이 8.33m, 600년대 초)